



#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변화: IFRS 17 시행은 사업모형 혁신 기회

김해식 연구위원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최종 확정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르면 보험회사 당기순익의 원천과 보유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이익의 현재가치를 재무제표에 모두 명시해야 함
  - 현행 회계에서는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보유한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이익 규모의 현재가치를 알 수 없음
  - IFRS 17은 보험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보험마진과 이자마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험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이익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표시하도록 함
  
- IFRS 17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 성과를 구분하여 당기순이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일반 투자자와 보험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 경영성과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함
  - 현행 회계제도는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투자영업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자비용은 투자영업에 반영하지 않아 자산운용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해 자산운용 재원인 저축보험료는 즉시 적립금 부채로 인식하고, 적립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수익과 적립금에 지급한 이자비용 모두 투자영업에 반영하여 이자마진을 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 성과와 다른 금융권 적립금(예수금)회계와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함
  
- 또한 IFRS 17은 보험상품 판매로 예상되는 장래이익의 현재가치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보험회사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보유를 기대할 수 있는 최종 이익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내재가치 등 재무제표 외(Non-GAAP)의 지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가치를 설명해 왔음
  - IFRS 17은 보험회사 가치 중 상당한 부분인 장래이익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쉽게 보험회사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래이익과 당기순익 원천 정보 등의 성과지표를 제공하는 IFRS 17 시행을 고성장에 최적화된 기존 사업모형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혁신하는 기회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험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성과지표를 공유함으로써 사업모형 혁신은 더욱 촉진될 것임

## 1. 검토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5월 확정된 보험회계기준(IFRS 17)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험 회사 수익에서 저축보험료를 제외한다는 것임<sup>1)</sup>
  - IFRS 17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가운데 당기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보험료(이하 ‘저축보험료’)는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함
  - 이에 IFRS 17 시행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부채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음
- 또한 현행 회계기준(IFRS 4)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로는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 IFRS 17은 손익계산서를 마진 위주로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현행 손익계산서는 위험인수와 결합(risk pooling)이라는 위험보장활동의 보험영업 성과와 투자활동의 자산운용 성과가 혼재되어 있어 투자자나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이익이 어디에서 창출되는지를 손익계산서를 통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실제로 보험회사 손익계산서에는 위험보장과 관련이 없는 저축보험료가 수익에 포함되어 있고, 자산운용에서 창출된 이자수익 가운데 보험계약자 몫으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이 투자영업에 표시되지 않음<sup>2)</sup>
- 한편, 지속적인 성장 둔화와 저금리에 직면하고 있는 보험산업은 고성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현재 사업모형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IFRS 17이 사업모형 전환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고성장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마진이 적더라도 전체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그런 외형확대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지표가 수입보험료임
- 이에 IFRS 17이 제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새로운 경제 및 규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1) IASB(2017. 5), “IFRS Standards Project Summary: IFRS 17 Insurance Contracts”

2) 이자비용은 비용항목인 준비금증가액(생명보험은 책임준비금전입증가액, 손해보험은 보험료적립금증가액)에 반영되고 있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준비금증가액은 투자영업 항목이 아님

## 2. 보험료 수익 기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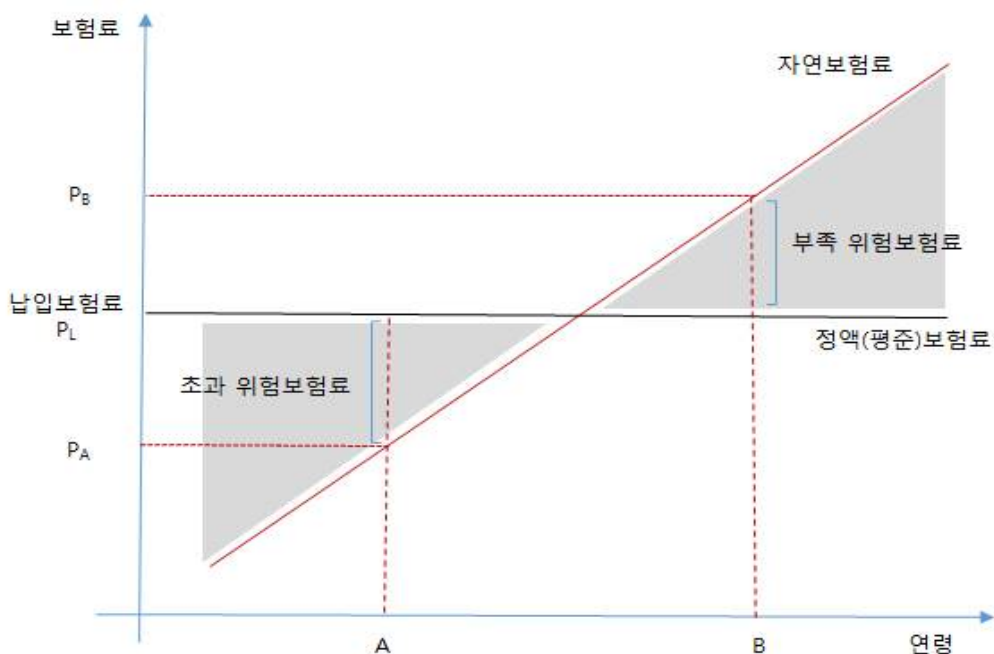


### 가. 현행 회계기준

■ 현행 보험회계(IFRS 4)는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를 모두 수익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저축보험료는 당기의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음

- 당기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저축보험료에는 처음부터 투자 목적으로 납부한 저축보험료뿐만 아니라 당기 위험보험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미래의 위험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음(〈그림 1〉 참조)
  - 사망, 질병 및 상해 위험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들 위험이 발생하여 지급하게 될 예상보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도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함
  - 장기보험의 위험보험료는 관행적으로 정액( $P_L$ )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소비자 소득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초기에는 예상 위험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 ( $P_L - P_A$ ) 저축보험료가 생기고 차후에 부족한 보험료( $P_L - P_B$ )는 저축보험료(초과 위험보험료)로 보전하는 방식임

〈그림 1〉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 따라서 현행 보험회계는 당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저축보험료를 비용(준비금증가액)에 반영하여 수익에 포함된 저축보험료를 차감한 후 그만큼 보험부채를 증가시키는 조정 과정을 거침

〈표 1〉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100의 회계처리(예시)

현행 회계(IFRS 4)	IFRS 17
1) 현금(자산) 100 / 보험료(수익) 100	1) 현금(자산) 100 / <u>예상보험금 등(수익) 30</u>
2) <u>준비금증가액(비용) 70</u> / 적립금(부채) 70	<u>적립금(부채) 70</u>

주: IFRS 4에서는 저축보험료를 준비금증가액에 반영하여 수익과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 2가 추가로 이루어짐

## 나. IFRS 17: 저축보험료를 수익에서 제외

- IFRS 17은 당기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수익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보험회사가 저축보험료를 즉시 보험부채로 인식하도록 함

-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적립금(deposit)이라는 점에서 다른 금융권의 예수금(적립금)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일부에서는 IFRS 17 시행 시 보험회사의 수익이 감소함은 물론이고 저축보험료만큼 부채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오해가 있으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행 회계와 동일함(〈표 1〉 참조)
  - 현행 회계의 조정 과정이 손익계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임

- IFRS 17 시행 시 장기보험의 보험료수익은 현행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IFRS 17에서는 당기 위험보험료와 직접사업비의 일부만이 수익에 반영됨을 고려하면, 장기보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수익은 현재 규모의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대비 당기 위험보험료와 실제사업비 비중은 30% 수준임<sup>3)</sup>
- 다만, 상품 판매 시에 예측한 장래이익과 위험조정이 매기마다 시간경과를 반영하여 수익에 반영되므로 여기에 보험료수익을 합하여 보험영업의 전체 수익 규모가 결정될 것임<sup>4)</sup>

3) 김해식·김세중·김현경(2016),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 비용관리』;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4) 장래이익은 Contractual Service Margin, 위험조정은 Risk Adjustment를 의미함

### 3. 이자마진 표시



- 자산운용을 주된 사업모형으로 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인 이자마진을 통해 자산운용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IFRS 17도 보험회사에 보험마진과 별도로 이자마진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함
  - 자산운용 수익은 소비자가 맡긴 예수금이 아니라 예수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이고, 그 이자수익 중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차이가 자산운용의 성과임
  - 이를 반영하여 IFRS 17이 투자영업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인 이자마진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다른 금융권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표 2〉 보험회사의 보험료적립금에 대한 이자비용 회계처리(분개 예시)

현행 회계(IFRS 4)	IFRS 17
3) 현금(자산) 28 / <u>이자수익(수익) 28</u>	3) 현금(자산) 28 / <u>이자수익(수익) 28</u>
4) <u>준비금증가액(비용) 25</u> / 적립금(부채) 25	4) <u>이자비용(비용) 25</u> / 적립금(부채) 25

주: 손익계산서의 준비금증가액에는 〈표 1〉의 2)도 이자비용이 합산된 금액이 반영되며 그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음

- 현행 보험회계는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투자수익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자비용은 준비금증가액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영업을 보험영업의 지원 기능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현행 회계는 보험계약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보험료적립금의 증가로 인식하여 투자영업 항목이 아닌 준비금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IFRS 17은 이자비용을 투자영업에 포함(〈표 2〉 참조)
  - 현행 회계가 자산은 보험부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보는 반면, IFRS 17은 기본적으로 보험영업과 자산운용을 별개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를 구성함
    - 특히 IFRS 17은 자산운용이 주된 사업모형인 다른 금융권과의 비교가능성을 강조함

## 4. 새로운 성과지표와 사업모형 혁신



- 고성장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마진보다는 보험료 규모 등 외형확대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수입보험료는 이러한 성장전략을 잘 보여주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마진이 낮더라도 보험료, 특히 저축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레버리지 확대가 성장에 유리했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규모가 보험회사의 주요 성과지표임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성장 둔화와 저금리 상황에서 고성장에 최적화된 사업모형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재무제표 이외의 지표를 통해 사업모형 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들 역시 보다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원하고 있음
  - 수입보험료 등 기존 지표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보험회사는 내재가치<sup>5)</sup> 등 재무제표 외(Non-GAAP)의 지표를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 성과를 설명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나 회사마다 적용 가정이 달라 상호 비교에는 제약이 있음
  - 또한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의 원천을 보여주는 이원(sources of profit), 즉 마진 정보는 공개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비공개 정보로서 보험회사 내부와 금융당국에만 제공되고 있음
- IFRS 17은 보험마진과 이자마진 정보, 그리고 내재가치에 상응하는 장래이익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성장에 최적화된 기존 사업모형을 혁신하는 기회로 IFRS 17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IFRS 17 시행은 원가로 기록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IFRS 17 최초 적용 시 보험회사는 상당한 부채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보험 및 투자 영업 성과와 보험계약 판매로 기대되는 장래이익 정보는 산업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임
  - 또한 IFRS 17 시행은 보험회사가 사업모형을 혁신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경영성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이들 성과정보를 보험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상품 및 자산 구성 등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기대됨 **kiqi**

5) 국내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내재가치(Traditional Embedded Value)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